

【특 집】

전시 만주국의 국책사업과 『滿鮮日報』의 행보*

전경선**

Ⅰ 차 례 Ⅰ

- I. 머리말
- II. 만주국의 언론정책과 『만선일보』
- III. 『報道報國』의 실행지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언론기관이자 미디어로서의 『滿鮮日報』 자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체제협력지로서의 그 성격과 특징을 지면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滿鮮日報』는 만주국 수도新京에서 발간된 한글 일간지이다. 이 신문은 만주국 정부의 본격적인 언론통제인 滿洲弘報協會의 설립과 함께 창간된 『滿蒙日報』를 그 전신으로 한다.

『만선일보』는 1940년 5월호까지 조석간 각 4면의 일간지로 발행되었다. 6월호부터는 운송비의 절감, 경영의 합리화를 이유로 총 8면으로 일괄 편집된 종합 일간지로 발행되었다. 이 신문의 8면 일간지 체제는 기본적으로 1941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 『만선일보』는 1940년 8월 조선반도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된 이후에는 한글신문으로서의 그 입지를 한층 다져갔다.

이후 『만선일보』는 『報道報國』, 『報道國策』라는 전시 미디어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친일, 체제협력지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48910)

** 신라대 역사교육과.

특히 만주국의 주요 국책인 국병법, 개척정책 관련 신문의 행보는 전시 미디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신문의 지면은 정부의 입장을 선전, 대변하는 논조의 글을 쏟아냈다. 사실은 물론, 국책 관련 고정면 혹은 고정란을 설정함으로써 국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신문은 국병법과 관련해서 조선 청년의 경우 징병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방식으로 군인이 될 것을 독려했다. 가령 입영 지원자의 갖가지 사연들은 '애국의 적성'으로 보도되고 '미담'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개척정책에서는 <월요개척민판>, <개척민판> 등의 고정지면을 설정하여 불안정한 선계개척민들이 개척의 주역인 '척사'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데 협력하였다. 더욱이 신문사는 국책 관련 주관사업 혹은 행사를 개최하고 다시 그 경과를 지면상에 보도하였다. '선계개척지순회방문'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신문 지면의 안팎을 아우르는 『만선일보』의 국책 협력 행보는 이 신문의 '체제협력지'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만주국, 만선일보, 국책, 재만조선인, 체제협력지

I. 머리말

『滿鮮日報』는 만주국 수도新京(新京: 지금의 長春)에서 발간된 한글 일간지이다. 『滿蒙日報』(1933년 8월 창간)가 『間島日報』(1924년 12월 창간)를 매수 통합한 후, 1937년 10월 21일부터 새로운 제호로 발행된 신문이다. 1940년 8월 조선 본토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폐간 이후에는 재만 유일의 한글 신문으로 그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신문 발행지인 수도新京(新京: 지금의 長春)을 포함한 만주국 전 지역은 물론 일본 내지와 한반도의 기사까지 다루면서 보도의 폭을 넓혀 갔다.

『만선일보』는 전시 만주국의 언론통제가 극도로 강화되던 시기에도 유일 조선어 언론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흔히 체제 협력지 혹은 정부 기관지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만선일보』는 한글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을 보도한 신문이자 무엇보다 만주국 조선인 사회의 처지와

입장을 대변하기도¹⁾ 했던 매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최근 들어 『만선일보』 관련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학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만선일보』의 학예면은 당시 재만조선문학의 건설과 보급을 위한 중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다. 최근 연구는 이런 학예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제와 분석을 더하고 있다.²⁾ 학예면에 실린 〈만주조선문학 건설 신제의〉(1940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21회 연재)를 추동한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만주국 국민형성담론에서 조선인의 지적 사유의 역할을 조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만선일보』를 통해 대표적인 재만조선인 작가 현경준의 행보를 추적함으로써 그의 연보와 작품을 심도 있게 보완, 분석한 연구도³⁾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던 『만선일보』의 〈국어〉란에 관한 분석,⁴⁾ 또 『만선일보』에 실린 여성담론 관련 연구도⁵⁾ 유의미한 학술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만선일보』의 ‘동남부치안숙정공작’ 후원 보도를 분석하여 본 신문의 친일적, 체제 협력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도⁶⁾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문학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만선일보』를 대상으로 한 의미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기관이자 미디어로서의 『만선일보』 자체를

- 1) 예를 들면, 사설란에서는 교육(여건), 주택문제, 신곡 수매가 인상 등 재만조선인 사회가 당면문제를 이슈화하기도 했다. 「(社說) 鮮系教育의運營 一貫한調整이必要」, 『滿鮮日報』 1940년 8월 20일 1면; 「(社說) 鮮系初等教育의經營의一元化必要」, 『滿鮮日報』 1940년 8월 22일 1면; 「(社說) 鮮系 국민 의 주택 대책과 그 의의」, 『滿鮮日報』 1940년 4월 2일 조간 1면; 「(社說) 新穀 收買價에의 要望 適正한引上必要」, 『滿鮮日報』 1940년 9월 13일 1면 등.
- 2) 서재길, 2022, 「만주조선인 문학 건설 신제창 해제」, 『만주연구』 34; 사책, 2023, 「1940년대 『만선일보』의 조선문학 건설 담론에 대한 연구: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의 제기 동인(動因)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5; 사책, 2024, 「홍보신체제의 확립과 만주 조선 지식인의 문화 동원: 『만선일보』 학예면 소개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8; 리하일라 G. 휴어드, 2023, 「1937~1942년 『만선일보』 소개 『만주조선문학』 저술」, 『만주연구』 35 등.
- 3) 조윤정, 2024, 「만주 이주 전후 현경준의 연보 보완과 『만선일보』 소개 교육 논설의 발굴」, 『현대문학의 연구』 83.
- 4) 유수정, 2024, 「『만선일보』 ‘국어’란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83.
- 5) 이진아, 2024, 「『만선일보』 여성 담론 연구: 여성 시리즈 기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83.
- 6) 전경선, 2024, 「전시 『滿鮮日報』의 보도와 체제 협력: 東南部治安肅正工作에 대한 후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65.

분석한 기본적인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만선일보』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짧은 글⁷⁾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만주국 미디어정책의 흐름 속에서 『만선일보』의 창간 경위를 살피면서 시국의 변화에 따른 『만선일보』의 발행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미디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만선일보』는 흔히 친일, 체제협력지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만선일보』의 성격 규정은 본 신문의 지면이나 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 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신문의 지면 분석을 통해 신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이 글에서는 『만선일보』의 기존 성격 규정인 친일, 체제협력지로서의 면모를 구체적,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시 만주국의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한 『만선일보』의 지면 분석을 통해 그 행보를 추적, 파악함으로써 전시 미디어이자 체제협력지로서의 그 성격을 선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만선일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만주국의 언론정책과 『만선일보』

1. 滿洲弘報協會와 『만선일보』의 창간

만주국 정부 혹은 관동군의 신문(사)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는 ‘滿洲弘報協會(1936~1940, 이하 흥보협회)’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건국 이후 만주국에서는 ‘출판법’의 제정(1932.10), 국책 통신사 ‘滿洲國通信社’(이하 국통)의 설립(1932.12) 등을 통해 출판물에 대한 검사와 단속, 그리고 뉴스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가하면서 이미 언론통제를 시작하였다. 더욱이 일본과 중국 간 전면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만주국 정부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언론통제의 필요성에서 설립

7) 정진석, 2001, 『언론과 한국 현대사』(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354-368쪽; 이복규, 2017, 『『만선일보』(滿鮮日報)』, 『滿蒙日報』 제1권(서울: (株)高成圖書流通), 1쪽 등.

한 조직이 홍보협회이다.⁸⁾

홍보협회는 1936년 4월 「주식회사 만주홍보협회에 관한 건」(칙령 제51호)에 의거하여, 동년 9월 자본금 200만 엔의 주식회사로 발족하였다.⁹⁾ 그 설립 자금 200만 엔은 만주국 정부가 국통을, 만철이 각 신문사를 현물출자(7개 신문사, 175만 엔 상당)하고 거기에 신문통신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가 25만 엔을 출자한 것이었다.¹⁰⁾ 이에 따라 홍보협회는 만주국 소관이었던 국통을 '通信部'로 편입시켜 직영하고 만철로부터 넘겨받은 각 신문사를 협회 산하의 가맹사로 두게 되었다.¹¹⁾

이후 만주국의 언론통제는 만주의 통신사와 주요 신문사로 구성된 홍보협회를 설립하고 그것을 관동군, 만주국 등으로 구성된 관동군 사령군 직속조직인 '홍보위원회'가 장악, 지도하는 데 있었다. 즉 군은 상부에 위치하여 미디어가 자체 통제를 하도록 하는 형태였다.¹²⁾

홍보협회의 언론계 통제는 우선 각 가맹 신문사에 투자를 통해 전체 혹은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서 지주회사의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각 가맹사의 업무와 경영을 지배했다. 특히 각 가맹사에 대한 뉴스 통제는 홍보협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즉 공통뉴스는 국통이 그것을 취재하고, 각 신문사는 그 소재 지역 뉴스의 지면 제작에 주력하게¹³⁾ 하는 업무 구조로 뉴스의 일원화, 획일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비가맹사에 대해서는 원고 구입, 보조금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가하여 이들이 사실상 협회에 가맹하지 않고 존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¹⁴⁾

8) 만주홍보협회에 대해서는 전경선, 2013, 「만주국의 신문통제와 滿洲弘報協會(1936~1940)」, 『大邱史學』 113 참조.

9) 「株式會社 滿洲弘報協會」, 『滿洲國現勢(康德四年版)』(新京: 滿洲國通信社, 1937), 484쪽.

10) 滿洲弘報協會 理事長·滿洲國通信社 社長 森田 久, 1940, 「滿洲の新聞は如何に統制されつつあるか」, 滿洲弘報協會 編, 『滿洲の新聞と通信』(新京: 滿洲弘報協會).

11) 「滿洲弘報協會組織表」, 『滿洲國現勢(康德四年版)』(新京: 滿洲國通信社, 1937), 485쪽 참조.

12) 里見脩, 『新聞統合: 戰時期におけるメディアと國家』(東京: 勁草書房, 2011), 66쪽.

13) 滿洲弘報協會 理事長·滿洲國通信社 社長 森田 久, 1940, 앞의 글.

14) 李相哲, 2000, 『滿洲における日本人經營新聞の歴史』(東京: 凱風社), 172쪽 참조.

처음 홍보협회는 국통 이외에 7개 신문사, 즉 『滿洲日日新聞』, 『大新京日報』, 『哈爾濱日日新聞』(이상 일문), 『大同報』, 『盛京時報』(이상 중문), 『滿蒙日報』(국문), 『만추리아 데일리 뉴스』(영문)를 가맹사로 출발하였다.¹⁵⁾ 이후 『만선일보』로 제호를 변경하는 『만몽일보』 역시 7개 가맹사 중 하나였다. 『만몽일보』는 1933년 8월 25일 만주국 수도新京에서 창간되었다. 그 창간에 관해서는

재만조선인에 대해 민족협화 정신의 고취 및 국책에 순응하도록 또 문화의 향상과 사상 선도를 도모함과 함께 정확한 만주국의 사정을 조선 내에 인식시키고 동시에 재만조선인에 대해 고향인 조선 본토의 「뉴스」를 보도할 목적으로써 관동군 사령관(참모부)의 지시에 의해 소화 8년 4월 30일 창립 위원에 李性在(현 대표취체역) 외 3명 遷任, 설립 준비에 착수 동년 8월 25일 칭호를 滿蒙日報로 창간된 것으로, 그 경영비는 외무성, 관동군 사령부, 조선총독부, 관동청 및 만철 각 당국으로부터의 보조금과 (당)사 자체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¹⁶⁾

라고 하였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문의 창간이 관동군 사령관의 지시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동군 측의 신문 창간의 목적은 재만조선인의 '민족협화 정신의 고취'와 '국책 순응'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문화 향상'과 '사상 선도'의 목적도 있었다. 본 신문은 창간부터 독자층으로 재만조선인은 물론 본토의 조선인도 상정하였다. 재만조선인에게는 조선 본토의 뉴스를 전달하는 한편, 조선 본토의 독자층에게는 만주국의 사정을 인식시키기 위한 신문이었던 것이다. 본 신문의 경영 자금은 신문사 자체 수입뿐만 아니라 관동군 사령부 등 만주국 당국의 보조금에도 의지하였다. 이것은 신문의 창간과 운영면에서 모두 관동군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할 때 본 신문은 체제 순응적, 관변적 성향을 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홍보협회 설립 이후 또 하나의 언론통제 방식인 재만 신문통폐합의 흐름 속에

15) 滿洲弘報協會 理事長·滿洲國通信社 社長 森田 久, 1940, 앞의 글.

16) 滿洲弘報協會 編, 1940, 『滿洲の新聞と通信』(新京: 滿洲弘報協會), 55쪽.

서 『만몽일보』는 1936년 11월 『간도일보』를 매수, 통합하였다. 현재 확인이 가능한 『만몽일보』의 호는 1937년 7월분 정도이다. 총지면 4면의 일간지로, 3면에는 <고향소식>란이, 4면은 학예, 가정면으로 편집되었다. 7월 1일자 발행 정보에 의하면 『만몽일보』는 『간도일보』를 매수한 후에는 만몽일보 간도지사를 운영하면서 ‘간도판(間島版)’을 따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본 신문에 대한 홍보협회 측의 설명을 더해보면

재만조선인 백만 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新京에 滿鮮日報(구 滿蒙日報을 康德4년 12월 改題)가 있습니다. 同社는 앞서 間島에 있는 間島日報(한글)를 매수하고 龍井에서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영의 합리화와 일원화의 원칙에 따라 康德4년 12월부터 間島 발행을 중지하고 新京에서 滿鮮日報로 명실공히 合體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재만 유일의 한글 신문으로서 협회에서 그 육성에 다대한 희생을 치러 온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¹⁷⁾

이처럼 간도에서 발행되던 ‘간도판’은 1937년 12월부터 경영 합리화, 일원화의 원칙에 따라 발행이 중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만몽일보』, 즉 『만선일보』로 완전히 통합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미 『만몽일보』는 1937년 10월 제호를 『만선일보』로 변경하였다. 개호 무렵 본 신문의 발행 부수는 1937년 9월 말 현재 2만 부였고, 주요 임원진은 사장 이용석(李容碩), 부사장 이성재(李性在), 주간 야마구치 겐지(山口源二), 주필 염상섭(廉尙燮), 편집 박팔양(朴八陽), 사회 전영우(田榮雨) 등이었다.¹⁸⁾ 본 신문사는 “1937년 6월 1일부로 홍보협회 촉탁(囑託) 야마구치가 주간을 맡고 사내의 기구를 개혁 확



『만몽일보』
1937년 1월
1일자 발행 정보

17) 滿洲弘報協會 理事長·滿洲國通信社 社長 森田 久, 1940, 앞의 글.

18) 정진석, 2001, 앞의 책, 357쪽.

충”¹⁹⁾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홍보협회의 지원 하에 ‘재만 유일의 한글신문’의 입지를 굳혀 갔다고 할 수 있다.

2. 재만 유일 한글신문으로 발전

『만선일보』는 1940년 5월호까지 조석간 각 4면의 일간지로 발행되었다.²⁰⁾ 6월호부터는 운송비 절감,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총 8면으로 일괄 편집된 종합 일간지로 발행되었다.²¹⁾ 이에 따라 이전 조간 4면에 함께 실렸던 학예면과 가정면은 따로 구분되어 각각 3면과 6면으로 편집되었다. 본 신문의 총 8면 일간지 체제는 기본적으로 1941년 12월까지 지속된다.²²⁾

1940년 6월과 8월 『만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본 신문의 ‘사명(使命)’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 무렵 동아시아 정세는 중일전쟁이 장기전의 늪에 빠져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긴박함을 더해가고 있었다.

6월 1일자 <사설>에서는

一日이라도 報道的 使命에서 脫却된 日업시 꾸준히 國策에 협력하여 滿洲國內에 在한 百三十萬의 朝鮮人을 民族協和에 依한 道義國家 創建을 理想으로 하고 있는 이 나라의 完全한 國民이 되도록 誘導하는 有力한 槓杆이 되어왔고 朝鮮 및 支那 在住半島同胞에 對하여는 우리 滿洲國의 興隆發展의 面貌와 또한 鮮系國民의 消息을 傳하는 거울이 되어온 것은 …… 本報 使命을 遺憾업시 發揮할 必要가 增長됨은 本報가 支那事變 勃發 爾後 最近 數年間에 잇서서 例年の 數三倍에 達하는 讀者의 加速度的 增加를 齎來한 事實이 이를 證佐하는 것이다.²³⁾

(밑줄은 필자 강조, 이하 동일)

19) 滿洲弘報協會 編, 1940, 앞의 책, 55쪽.

20) 제호 변경 이후 1939년 11월호까지는 결호.

21) 「本報發行回數變更」, 『滿鮮日報』 1940년 5월 30일 조간 1면.

22) 1941년 4월~10월호까지는 결호 상태라 확인 불가.

23) 「(社說) 本報使命의 再認識」, 『滿鮮日報』 1940년 6월 1일 1면.

었다. 즉, '만선일여' 정신에 따라 조선 내의 독자를 위한 '보도봉사'도 사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어서 조선 내 언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만선일보』는 기존의 편집 방침을 변경하였다.²⁵⁾ 1940년 8월 27일자부로 8면에 〈조선판(朝鮮版)〉이 개설되었다. 〈조선판〉에는 경성을 비롯한 조선 각지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특히 각 방면에서 '內鮮一體'가 가속화되고 있는 조선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아울러 3면에는 〈국어〉란이 신설되었다.²⁶⁾ 1940년 12월 2일자에는 〈월요개척민판(月曜開拓民版)〉(4면)이 등장하는 등 본 신문의 편집에서 적지 않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면상의 변동은 긴박한 시국에 대응하면서 시국에 대응하면서 '보도보국'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선일보』 발행 정보(잔존호 기준)〉

제호	호수	면수	변동 사항
만몽일보	1937년 7월	4면	• 1933년 8월 25일 창간(新京)
			• 1936년 11월 『간도일보』(1924.12. 창간) 매수, 통합
만선일보	1939년 12월~1940년 5월	조/석 각 4면 (조석간합8면)	• 1937년 10월 제호 변경
	1940년 6월~8월	8면 조·석간 종합 편집	• 구독료 유지, 운송비 절감 경영 합리화 도모 • 학예면(3면), 가정면(6면) 구분 → 학예면 확장
	1940년 9월~1941년 3월	"	•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0.8) 폐간 • 조선판 개설(1940.8.28. 8면) • 국어란 신설(1940.8.29. 3면) • 월요개척민판 신설(1940.12.2. 4면)
	1941년 4월~10월	결호	
	1941년 11월~12월	8면	• 조선판(6면) • 산업경제(8면) • 월요개척민판(4면) → 개척판 변경(8면)

25) 『朝鮮版發行紙面變更』, 『滿鮮日報』 1940년 8월 28일 1면.

26) 〈국어〉란에 관해서는 유수정, 2024, 앞의 논문 참조.

	1942년 1월~2월	6면	• 용지 절약의 필요상 지면 수 축소
	1942년 3월~10월	4면	• 二版制 실시(1942.4.1.~)

III. ‘報道報國’의 실행지

1. 국병법의 실시와 ‘愛國熱’의 조장

태평양전쟁이 임박해질 무렵, 만주국에서도 대중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전시체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1939년 4월부터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 결과 만주국 병역제도는 기존 지원제 방식의 모병제에서 의무병제인 징병제로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1940년 4월 11일 상유와 더불어 제국 인민 남자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국병법 및 시행령 전문이 공포되었다. 전문 6장 48조로 구성된 만주국 국병법에서는 ‘정병주의(精兵主義)’를 채택하였고 ‘정병(精兵)의 양성’과 ‘양민(良民)의 연성’을 목표로 하였다.²⁷⁾

징병제인 국병법 실시가 확정되자, 『만선일보』에서는 〈사설〉²⁸⁾을 통해 전시 중요 국책의 하나인 국병법을 적극 지지하였다.

공포된 國兵法는 두말 것업시 國土의 保全과 尙ほ 赤色蘇聯에 對한 強力한 防波堤가 될만한 優秀한 國軍을 建設함이 理想임으로 一般的 義務兵制度에서 나아가 精兵主義에 依한 獨特한 徵兵制度를 쓴 것은 高價로 平價할 만한 것이다. 卽現下의 我滿洲國의 民度を 考慮할진대 日滿共同防衛陣의 一方의 멤버로써 精銳한 日本軍과 엇게를 나란히 하여나감에 잇서서는 精銳主義가 필요하기 새문이다. 또한 今回의 國兵法의 主要 對象은 量的 絶對 多數인 土着 國民임으로 兵役의 義務는 日本內地人과 및 朝鮮人에 잇서서는 賦與되어 잇지안타. 이것은 日本人은 第一次의 으로 日本人으로서

27) 전경선, 2017, 「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국병법 선전」, 『만주연구』 23.

28) 「(社說) 劃期的인 國兵法의 實施」, 『滿鮮日報』 1940년 4월 12일 조간 1면.

의 義務兵役이 있음으로 이것을 遂行함으로 滿洲國國兵法의 目的에는 一致되는 것으로 便宜上 志願에 依한 奉仕가 規定된 것이다. 日本人의 一部分으로써 義務兵役制 實施의 理想에 向하여 志願兵制運用의 對象이 되고있는 朝鮮人은 이 志願兵制의 정신에 倅러 我滿洲國內에 잇서서도 또한 志願에 依하여 軍人으로써 國家에 奉仕할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으로 今回 實施되는 我滿洲國의 國兵法에잇서서 朝鮮人이 義務를 負擔치안코 志願에 依하여 奉仕할수 있게 된 것은 內鮮一體의 觀點에서 日本人으로서의 兵役에 對한 義務가 朝鮮內에 잇서서의 그것과 相應한 것이니 朝鮮人은 日本人 된 矜持로써 感謝의 念을 가지고 義務에 倍되는 誠意를 가지고 健康한 男兒 맛당히 新興國家의 兵士로도 勇鬪 志願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국병법 포스터
 (『滿鮮日報』 1940년 4월 14일 석간 2면)

우선 만주국 징병제의 특징이자 핵심인 ‘징병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의 미를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징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만조선인은 ‘지원’에 의해 군인으로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곧이어 국병법을 선전하는 포스터가²⁹⁾ 실렸고, 국병법 관련 기사는 여타 국책

과 달리 이례적으로 가정면³⁰⁾과 <어린이>란의 지면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의 군대 복무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입영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다른 가족들의 이해와 격려가 필요한 일이고, 특히 한 가정의 어머니, 부인들의 국병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면에도 국병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장차 군대 복무의 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수준으로 국병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³¹⁾

29) 「國兵法 포스터」, 『滿鮮日報』 1940년 4월 14일 석간 2면.

30) 「만주국의제이건국 청사에특기하여야할 국병법을수공포」, 『滿鮮日報』 1940년 4월 16일 조간 4면.

31) 「어린이일요일만 국병법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十九세면 징병검사 일본과갓치 훌륭한 이무제도가 생겼지요」, 『滿鮮日報』 1940년 4월 28일 조간 4면.

“여러분과 갖치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인소학교생들이 크게 되면 모
다 만주국의 병정으로 되어 제일선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국건이 세의 국주만

청사예특가하여야 할

국병법을 수공로

◇방상회기적인중대처사◇

국병법이란 무엇인가? 국병법은 만주국의 국방을 강화하고, 국민을 훈련시켜서,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이다. 이 법은 만주국의 독립과 자주성을 수호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이 법을 수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병법을 수공로(수행공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만주국의 국방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에 노력하자.

〈가정면〉 국병법 선전(『滿鮮日報』 1940년 4월 16일 조간 4면)

국병법 실시 후 재만조선인은 국병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사 군
대제도로의 지원을 유도했다. 그것은 조선 본토에서 시행되고 있던 육군특별지원
병제도, 또 간도특설부대 등에 지원하는 것이었다.

국병법 실시가 확정된 4월이 채 가지 않은 시점에, 『만선일보』는 〈사설〉에서
조선 반도의 지원병 응모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³²⁾

朝鮮內에 잇서서 內鮮一體 具現化의 表徴으로써 가장 注目되고 잇는 陸軍特別志願
兵 訓練所의 今年度 立所志願者 지난 二月末까지 그 申込을 마감하였섯는데 그 總數
가 八萬四千四百四十三名이라는 多數에 達하였섯다. 이 龐大한 數의 志願者中에서 各
道에서 慎重히 選拔한 適格者는 三萬三千三百九十二人으로서 去四月二十日에 이中
에서 다시 第二次 ●● 檢査를 한 結果 豫定 募集員 三千名을 選出하여 이中 二千名은 今
年度中에 入所식히고 남은 千名은 收容形便上 來年度에 入所식히기로 되었다고 한
다.

(중략)

또한 今年度의 志願者 中에는 愛國의 赤誠을 披瀝하는 眞心을 表現키 爲하여 血書

32) 「社說」 朝鮮內志願兵應募者八萬名突破, 『滿鮮日報』 1940년 4월 24일 조간 1면.

로써 入植식혀주기를 切願한 應募者가 百七十餘名이나 있어서 當局者들을 感激케 하
였다는 것은 記憶할 일이다. 第一次 訓練을 마친 朝鮮人志願兵들이 昨年度中 ●西戰
線에 出陣하여 日本男兒의 일힘에 붓그럽지 안흐리만큼 愛國의 至誠에서 勇戰하여
그중에서 若干名이 戰場의 罅으로 사러진 사실을 회고할 旣에 半島青年의 渾然一致
된 愛國熱은 支那事變을 通하여 完全히 發揮될 수 있는 境地에 있는 것을 斷定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우리 滿洲國에 있어서도 國兵法 實施에 차러 志願兵으로써 國家의
干城이 될 수 있는 門이 열렸스즉 이 나라 안에 사는 鮮系國民도 이 실시에 차러서
鮮內同胞가 志願兵 應募를 通하여 披瀝한 것에 못하지 아니한 愛國의 赤誠을 나타내
여야 될 것이다.

〈사설〉에서는 조선 반도의 육군지원병제도에 지원한 많은 지원자들의 숫자, 그
리고 지원 열기에 대해 말한다. 특히 “혈서로 간절히 지원을 희망한” 지원자의
숫자 또한 적지 않아서 당국자들을 감동시켰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애국의 적성’
으로 표현했다. 결론은 이러한 조선의 ‘애국의 적성’이 만주국 선계국민, 재만조
선인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만선일보』의 지면에는 입영과 관련하여 갖가지 사연을 가진 청년과 어
머니 혹은 아버지의 ‘애국의 적성’이 소개되기 시작한다. 그 사연들은 하나같이
‘미담(美談)’으로 불려졌다.³³⁾

2. ‘개척’ 국책과 ‘拓土’의 양산

만주이민정책은 애초 일본인의 농업이민을 위주로 추진되었다. 1932년부터 시
작된 초기 ‘실험이민(實驗移民)’ 단계를 거쳐 1937년 히로다(廣田) 내각의 국책 「20
개년 100만호 이주계획(이하 ‘100만호계획’)이 실시되면서 본격화되었다.³⁴⁾ 만주이

33) 「特設部隊募兵美談 父子의 熱烈한 志願으로 特設部隊에 合格 汪清縣李炳贊君의 榮譽」, 『滿鮮日報』
1940년 4월 24일 조간 3면; 「壯丁屆出強調週間中 十八歲少年特別志願 佳木斯에 旣祖國美談!」, 『滿
鮮日報』 1940년 12월 5일 5면; 「우리 아들을 期於코 入隊식혀주오 姜公順女史의 赤誠」, 『滿鮮日
報』 1941년 2월 5일 5면; 「美談이 連發하는 壯丁檢査場!」, 『滿鮮日報』 1941년 2월 5일 7면; 「國兵
檢査美談 續出」, 『滿鮮日報』 1941년 2월 18일 7면 등.

34) 「20개년 100만호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加藤聖文, 2017, 『滿蒙開拓團-虛妄の「日滿一體」』(東京: 岩

민정책의 전환점이 된 ‘100만호계획’은 20년간 100만 호 500만 명의 일본인 농민의 만주 이주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정부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100만호계획’이 시작된 그해 7월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일본의 희망과 달리 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쟁으로 인한 농촌 성년 남자의 군대 소집, 더욱이 군수(軍需) 경기(景氣)에 따른 도시로의 노동력 유출의 확대는 이민 모집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대규모의 이민사업은 곧 차질을 빚게 되었다.

더하여 중일전쟁 개전을 전후하여 일소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만소 국경지역에서는 무력 충돌인 건차자도(乾岔子島)사건(1937.6), 장고봉(張鼓峰)사건(1938.7~8) 등이 일어났다. 장고봉사건을 계기로 관동군은 국경 방면의 방위 증강을 계획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만주국 정부는 1939년 ‘북변진흥계획(北邊振興計劃)’을 입안 추진하게 되었다. ‘북변진흥계획’은 국경지대의 7개 성(省), 즉 동안(東安), 북안(北安), 목단강(牡丹江), 삼강(三江), 흑하(黑河), 간도(間島), 흥안북(興安北)성에 1939년부터 1941년까지 3년간 “총액 10억 엔을 투자하여 군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개발, 민생진흥을 도모하여 군의 종합적인 작전력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³⁵⁾ 이와 같이 관동군은 중일전쟁 후 소련과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만(北滿) 개발을 서두를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형태로 이민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했다.³⁶⁾

한편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관동군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1936년에서야 그 시행이 결정되었다.³⁷⁾ 하지만 시행의 실질은 조선인 이민정책의 핵심인 ‘신규 이민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波書店), 98-115쪽 참조

35)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2009,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제국 일본의 교두보』(서울: 어문학사), 158쪽.

36) 加藤聖文, 2017, 앞의 책, 156쪽.

37)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입안(1931.12)에서 시행 결정(1936.10)에 이르는 과정은 조정우, 2020, 「‘불령선인’에서 ‘개척의 전사’로: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재편」, 『만주연구』 30 참조.

것이였다. “일본본토와 만주측에서는 조선인의 만주 정책 이민은 만주국방과 만주개발의 핵심 분자인 일본인 이민정책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기 때문”³⁸⁾이였다.

그런데 1937년 7월 시작된 중일전쟁의 장기전 양상은 조선인에 대한 이민정책을 일변하게 만들었다. 관동군은 전시 식량과 노동력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주이민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조선인의 기존 만주이민에 관한 규제(이민호수와 이주지역 제한 등)를 변경, 철폐하기 시작하였다.³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내지로부터의 이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인은 만주로 모셔와야 할 귀한 존재, ‘개척의 전사’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만주로의 농업이민보다 일본으로의 노동이민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⁴⁰⁾이였다.

이러한 만주국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 속에서 관동군은 만주이민정책의 본격적인 재편에 착수하였다. 1939년 1월 관동군 참모부 제4과 주도로 이민간담회(移民懇談會)⁴¹⁾가 개최되었고, 「이민근본국책기본요강(移民根本國策基本要綱, 이하 ‘이민요강’)」이 제시되었다. 여전히 조선인이민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일본 본토 관계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동년 6월 ‘이민요강’을 골자로 한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안(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案, 이하 ‘개척요강안’)」이 결정되었다. 그 사이 ‘이민(移民)’은 ‘개척민(開拓民)’으로, ‘이민지(移民地)·이주지(移住地)’는 ‘개척지(開拓地)’로, ‘이민정책(移民政策)’도 ‘개척정책(開拓政策)’으로 개칭되었다.⁴²⁾ 만주국의 ‘개척요강안’은 동년 8월 일본 정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12월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 이하 ‘개척요강’)」이 제정되었다.

38) 조정우, 2020, 앞의 논문.

39) 관동군은 1938년 7월 「재만조선인지도요강(수정) 및 선농취급요강」을 결정하여 새로운 조선인 이민정책을 제시하였다. 「선농취급요강」의 요령에는 1. 신규입식호수는 일단 매년 대략 1만호로 한다. 이 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민사무처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 2. 만주국정부는 전년도 적절한 시기까지 지역 및 업종별 입식호수를 결정하여 조선총독부에 통지한다 등(조정우, 2020,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은 기존 「선농 이주통제 및 안정실시요령」(1937.4)에서 대폭 후퇴하여 조선인 신규 입식의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

40) 조정우, 2020, 앞의 논문.

41) 본 간담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우, 2020, 앞의 논문; 加藤聖文, 2017, 앞의 책, 156-162쪽 참조.

42) 加藤聖文, 2017, 앞의 책, 163쪽.

이후 개척정책은 일반 양국 공동의 중요 국책으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특히 만주국에 있어 개척정책은 산업개발5개년계획, 북변진흥계획과 아울러 3대 국책의 하나로 전개되었다. “신개척국책(新開拓國策)”에서는 “日本内地人開拓民, 朝鮮人開拓民을 종합 고려하여 전체적 계획 하에 조화로운 발전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이로써 “鮮系開拓民도 國策에 대해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⁴³⁾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개척정책은 북변진흥계획의 일부로서 그것과 연동하는 형태로도 진행되었다. “日本開拓民 아울러 北邊振興에 적응할 수 있는 優良한 鮮人開拓民 및 原住民은 國境接壤地帶에도 定着시”⁴⁴⁾김으로써 북변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흐름 속에서 만주국의 ‘개척’국책 추진에 있어 ‘조선인’, 혹은 ‘조선인개척민’은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었다. 1940년 9월 조선에서는 일본 ‘기원2600년’과 조선총독부 ‘시정30주년’을 기념한 ‘조선대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박람회에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만주이민정책 대행사인 선만척식주식회사(鮮滿拓殖株式會社, 1936년 설립)는 ‘만주개척민관’⁴⁵⁾을 선보였다. 반도 조선인을 만주로 유인하기 위한 홍보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조선인의 만주 이주에 있어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조선 관계 당국의 주된 역할이 ‘모집’이었다면 그 바탕을 이어받은 만주국 관계 당국의 역할은 이들의 ‘정착’일 것이다. 고향을 떠나 물설고 낯선 이국땅을 말 그대로 ‘개척’해야 했던 조선인들의 삶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무렵 입식한 조선인들의 열악한 상황은 개척총국장(開拓總局長)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至今까지의 政府의 取扱에 依하는 것으로 鮮内로부터 新規로 入植한 開拓民은 集團集合開拓民 合하여 約一六〇〇〇戶이고 入植地는 未墾地를 主로하여 選擇하지 안 하면 안되는 關係上 其大多數는 無住地帶 或은 沿線으로부터 멀리 峙러진 僻地에 集

43) 「開拓國策展望」, 『滿洲國現勢(康德八年版)』(新京: 滿洲國通信社, 1940), 296쪽.

44) 「北邊振興計劃の概要-第一年度實績」, 『滿洲國現勢(康德八年版)』(新京: 滿洲國通信社, 1940), 292쪽.

45)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우, 2020, 앞의 논문 참조.

團部落을 結成하는 故로 不得已 教育衛生其他文化施設이 不充分하게 되고 또는 一治安不良에 依한 匪賊等도 있고 더구나 鮮農團拓民은 大概 其移住形態의 特色으로 하는 家族同伴의 入植을 하기 때문에 入植初의 假小屋生活 혹은 其住民의 家屋에 分散雜居 하야 그다음에 家屋建設 開墾을 同時에 着手한다든지 하는 急行軍인 故로 其間의 困苦는 이로 말할수업는46)

이렇듯 조선인의 입식지는 미개간지이자 무주지대였기 때문에 교육, 위생, 기타 문화시설이 불충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적까지 출몰하는 치안 불안 지역이었다. 또한 조선인의 이주형태를 이유로 들었으나 입식지에는 수용 가옥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런 까닭에 이주 조선인들은 임시 거처에서 농토 개간과 가옥 건축을 병행해야 하는 “급행군” 속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런 개척지의 현실에 놓인 선계개척민(鮮系開拓民)들에게 국책 개척사업의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계 당국자들의 고심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使命에 對한 確實한 信念과 自覺이 不足한 部分도 있어서 開拓地에 있어서의 故土와의 環境의 變異와 習俗의 相異 等에 依한 生●感과 또 큰 建設에 반드시 隨伴 되는 여러 가지 生活上의 不便이라든가의 勞苦를 잘 克服하지 못할가 하는 點이 恒常 念慮되는 바이다.47)

『만선일보』 사설의 ‘선계개척민’에 대한 인식과 우려는 만주국 관계 당국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선계개척민의 경우 국책 개척사업에 대한 신념과 자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지의 여러 가지 험난한 조건과 선계개척민의 현지 정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불안정한 선계개척민을 개척 국책의 일익을 담당하는 ‘개척의 전사’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데에 『만선일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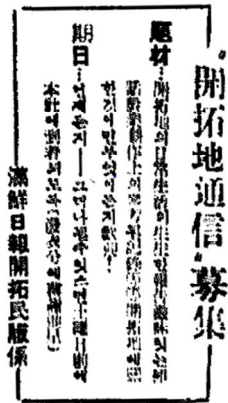
46) 「開拓民慰問計劃에 對한 各界人士讚辭 當局으로서 援助不惜 稻垣總局長談」, 『滿鮮日報』 1940년 8월 9일 1면.

47) 「(社說) 開拓民에 對한 關心 本社 慰問의 意義」, 『滿鮮日報』 1940년 8월 9일 1면.

1940년 12월 2일자 『만선일보』의 4면에는 <월요개척민판(月曜開拓民版)이 등장하였다. 총 8면의 신문지면 한 면 전체를 <개척민판>으로 편집하는 데 할애한 것이다. 『만선일보』의 사고(社告)에 따르면 <개척민판> 특별 편집의 목적은 “水準 낮은 開拓民 諸君에게 時局의 動向을 認識시키는 同時에 生活의 精神的 營養과 웃음과 慰安을”⁴⁸⁾ 주기 위함이었다. 우선 <개척민판> 발행에서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한 집단은 ‘개척민’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개척민판>을 통해 시국의 동향을 인식하고 또 현지의 험난한 삶에 위안을 받게끔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편집 방침에 따라 <개척민판>의 지면은 개척사업 관련 뉴스외에 <주간시사(週間時事)>란, <협화란(協和蘭)>, <개척지통신(開拓地通信)>란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간시사>란은 지난 한 주 동안의 국내외 주요 정치, 사회 방면의 각 뉴스를 간략하게 요약, 보도하는 코너였고, <협화란>⁴⁹⁾은 만주국 관변 민중동원단체인 ‘협화회(協和會)’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였다. 따라서 전자가 개척민들의 시국 인식을 위한 코너였다면 후자는 만주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코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척지통신>란은 주요 고정란이며 각 개척지의 현황을 소개하고 현지의 소식을 전하는 코너이다. 본사 개척민판계(開拓民版係)에서는 “開拓地의 日常生活의 生々한 報告, 滋味 있는 挿話, 農業耕作上의 參考될 記錄 등”⁵⁰⁾을 적극 모집하였다. 본란에 실린 현지보고성의 글에는 각 개척지의 현안이나 개척민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개척지의 삶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그리고 있는 느낌을 준다.⁵¹⁾ 이것은 개척지의 실상을 은



<개척지통신>모집
광고(『滿鮮日報』 1940년 12월 2일 4면)

48) 「開拓民版新設 本報紙面變更」, 『滿鮮日報』 1940년 12월 1일 1면.

49) 1940년 12월 2일, 9일, 23일자 <월요개척민판>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50) 「광고」 “開拓地通信”募集, 『滿鮮日報』 1940년 12월 2일 4면.

51) 「新婦가 온다 龍鎮開拓團 李元得」, 『滿鮮日報』 1940년 12월 2일 4면; 「呼蘭鎮全貌(上) 教育도 充實한 分散入植地 現地에서 朴壽萬」, 『滿鮮日報』 1941년 1월 13일 4면; 「呼蘭鎮全貌(下) 協和와 心田開

폐하고 미화하려는 본란의 편집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1941년 1월부터는 <개척문예(開拓文藝)>란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란에는 주로 '개척' 관련 시가 실렸다. “투고환영(投稿歡迎)”이라는 문구에서 작품들은 모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은 개척민들의 노동, 생산의 의기와 의욕을 북돋우는 내용이었다.⁵²⁾



「월요개척민판」의 일부(『滿鮮日報』 1940년 12월 2일 4면)

1940년 12월 2일자 4면에 <월요개척민판(月曜開拓民版)>을 신설한 이후 월요일 발간 신문지의 4면을 <월요개척민판>으로 고정 편집하였다. 1940년 12월에는 2일, 9일, 23일자의 4면을 <월요개척민판>으로 편집하여 총 3회에 걸쳐 발행하였다. 1941년 11월부터 4면의 <월요개척민판>은 8면의 <개척판(開拓版)>으로 변경되었다.⁵³⁾ 이후 1942년 1월부터 『만선일보』의 발행 지면 수가 총 8면에서 6면으로 감축됨에 따라 개척 관련 고정 지면의 명칭은 <개척판(開拓版)>으로 변경, 6면에 배치되었다.

發運動要望 現地에서 朴壽萬, 『滿鮮日報』 1941년 1월 20일 4면; 「零下五十度지위 그속에도 更生의勇氣! 嫩江第一開拓團長 李相洛, 『滿鮮日報』 1941년 2월 10일 4면 등.

52) 「이상을 파자, 『滿鮮日報』 1941년 1월 13일 4면; 「우리는農夫, 『滿鮮日報』 1941년 1월 20일 4면; 「開拓民行進曲, 『滿鮮日報』 1941년 2월 10일 4면; 「拓士の日記一束 希望에 가득찬生活, 『滿鮮日報』 1941년 3월 17일 4면; 「拓士の日記一束 希望에 가득찬生活, 『滿鮮日報』 1941년 3월 24일 4면; 「젊은開拓士여, 『滿鮮日報』 1941년 12월 8일 8면; 「大地의 소리, 『滿鮮日報』 1941년 12월 16일 8면 등.

53) 1941년 4~10월호가 결호 상태라 그 기간의 <월요개척민판> 편집은 확인할 수 없다.

만선일보사의 개척 국책 협력은 지면상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다. 본사 주관 사업 혹은 행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예컨대, 만선일보사에서는 1940년 일본 기원2600년 경축 사업의 하나로 ‘선계개척민순회위문(鮮系開拓地巡廻慰問)’을 진행하였다.⁵⁴⁾ 본사에서 파견한 위문반은 1940년 8월 17일부터 9월 14일에 걸쳐 북만 일대의 선계개척지를 방문하였다. 본 사업은 흥농부 개척총국(興農部開拓總局), 국무원 홍보처(國務院弘報處) 등 관계기관의 후원과 개척총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찬사와 관심 속에서 약 한달간 추진되었다. 위문반은 조선영화 『장화홍련전』(조선한양사 作), 『군용열차』의 문화뉴스영화(만주영화협회 제공) 등을 상영하고 비누, 담배, 카라멜, 인단 등 위문품을 증정하고 돌아왔다. 위문반의 방문기간 동안 『만선일보』의 지면에서는 본 행사와 관련한 기사를 여러 차례 실었다.⁵⁵⁾ 특히 행사 종료 후에는 그 성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⁵⁶⁾ 이러한 사업 역시 개척민, 나아가 개척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IV. 맺음말

『滿鮮日報』는 만주국 수도新京에서 발간된 한글 일간지이다. 만주국 정부는 혹은 관동군의 신문(사)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는 滿洲弘報協會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만주홍보협회의 가맹사, 7개의 신문사 중 한글 신문으로 『만몽일보』가 포함되었다. 『만몽일보』는 1937년 10월 제호를 『만선일보』로 변경하였다.

『만선일보』는 1940년 5월호까지 조석간 각 4면의 일간지로 발행되었다. 6월호

54) 「(광고) 光榮의紀元二千六百年慶祝 本社事業其一 鮮系開拓地巡廻慰問班派遣」, 『만선일보』 1940년 8월 9일 1면.

55) 「鮮系開拓地巡廻慰問隊 待望裡十七日發程」, 『滿鮮日報』 1940년 8월 16일 7면; 「開拓地慰問의成果 卅八部落約二萬名 慰問班大成功裡明日歸京」, 『滿鮮日報』 1940년 9월 13일 7면; 「本社開拓民慰問團 全코-스巡廻코 歸還 在京人士多數의出迎裡에」, 『滿鮮日報』 1940년 9월 15일 7면 등.

56) 「一大劃線을點코 背後의關心集注 巡廻部落卅八慰問品萬二千點 本社鮮系開拓地慰問班의總收穫」, 『滿鮮日報』 1940년 9월 19일 7면.

부터는 운송비의 절감, 경영의 합리화를 이유로, 총 8면으로 일괄 편집된 종합 일간지로 발행되었다. 본 신문의 8면 일간지 체제는 기본적으로 1941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 『만선일보』는 1940년 8월 조선 반도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면서 ‘한글신문’으로서의 그 입지를 한층 다졌었다.

이후 『만선일보』는 ‘報道報國’, ‘報道國策’라는 전시 미디어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친일, 체제협력지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특히 만주국의 주요 국책인 국병법, 개척정책에 대한 신문의 행보는 전시 미디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신문의 지면은 정부의 입장을 선전, 대변하는 논조의 글을 쏟아냈다. 사실은 물론, 국책 관련 고정면 혹은 고정란을 설정함으로써 국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신문은 국병법과 관련해서 조선 청년의 경우 징병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방식으로 군인이 될 것을 독려했다. 가령 입영 지원자의 갖가지 사연들은 ‘애국의 적성’으로 보도되고 ‘미담’으로 소개되었다. 그 사연의 주인공으로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등장하였다. 또한 개척정책에서는 <월요 개척민판>, <개척민판> 등의 고정지면을 설정하여 불안정한 선계개척민들이 개척의 주역인 ‘척사’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데 협력하였다. 더욱이 『만선일보』의 개척 국책 협력은 지면상에만 머물지 않았다. 신문사는 국책 관련 주관사업 혹은 행사를 개최하고 다시 그 경과를 지면상에 보도하였다. ‘선계개척지순회방문’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신문 지면의 안팎을 아우르는 『만선일보』의 국책 협력 행보는 이 신문의 ‘체제협력지’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편집, 2017, 『滿鮮日報』(서울: (주)고성도서유통)
『滿洲國現勢(康徳八年版)』 1940(新京: 滿洲國通信社)
滿洲弘報協會 編, 『滿洲の新聞と通信』 1940(新京: 滿洲弘報協會)

2. 단행본

加藤聖文, 2017, 『滿蒙開拓團-虛妄の「日滿一體」』, 岩波書店
강진호 엮음, 1999, 『한국문단 이면사』, 깊은샘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지음,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孫素熙, 1978, 「滿鮮日報와 轉落의 詩集事件」, 『言論秘話 50』, 韓國新聞研究所.
榮元, 2021, 『租借地大連における日本語新聞の事業活動 滿洲日日新聞を中心に』, 晃洋書房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2009,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제국 일본의 교두보』, 어문학사
有山輝雄, 2023, 『近代日本メディア史II 1919~2018』, 吉川弘文館
채훈, 1990, 『일제강점기 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3. 논문

리하일라 G. 휴어드, 2023, 「1937~1942년 『만선일보』 소재 ‘만주조선문학’ 저술」, 『만주연구』 35
사책, 2023, 「1940년대 『만선일보』의 조선문학 건설 담론에 대한 연구: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의 제기 동인(動因)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5
사책, 2024, 「홍보신체제의 확립과 만주 조선 지식인의 문화 동원: 『만선일보』 학예면 소재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8
유수정, 2024, 「『만선일보』 ‘국어’란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83
이진아, 2024, 「『만선일보』 여성 담론 연구: 여성 시리즈 기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83
전경선, 2013, 「만주국의 신문통제와 滿洲弘報協會(1936~1940)」, 『大邱史學』 113
전경선, 2017, 「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국병법 선전」, 『만주학회』 23
전경선, 2024, 「전시 『滿鮮日報』의 보도와 체제 협력: 東南部治安肅正工作에 대한 후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65

- 조윤정, 2024, 「만주 이주 전후 현경준의 연보 보완과 『만선일보』 소재 교육 논설의 발굴」, 『현대문학의 연구』 83
- 조정우, 2014, 「조선총동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선만척식회사 설립 경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3
- 조정우, 2020, 「‘불령선인’에서 ‘개척의 전사’로: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재편」, 『만주연구』 30

투고일: 2025년 9월 21일 심사완료일: 202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10월 27일

■ Abstract ■

Wartime Manchukuo's State Policies and the *Manseon Ilbo*

Jeon, KyoungSun (Silla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Manseon Ilbo* as both a journalistic institution and a media outlet, examining its characteristics as a collaborationist Korean-language daily through content analysis. Published in Hsinking, the capital of Manchukuo, the newspaper traces its origins to the *Manmong Ilbo*, launched concurrentl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anchukuo Public Relations Association, the agency responsible for government press control.

The *Manseon Ilbo* was issued as a daily newspaper consisting of four pages each for its morning and evening editions until May 1940. Beginning in June of that year, under the stated rationale of reducing transportation expenses and achieving managerial rationalization, the paper was reorganized into a unified daily edition comprising eight pages in total. This format remained in place until December 1941. Following the enforced suspension of the *Dong-A Ilbo* and the *Chosun Ilbo* on the Korean Peninsula in August 1940, the *Manseon Ilbo* further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Korean-language newspaper.

During the wartime period, the *Manseon Ilbo* faithfully carried out its missions of 'serving the nation through reporting' and 'reporting in accordance with state policies', increasingly manifesting an overtly pro-Japanese and collaborationist character. In particular, the newspaper's coverage of key Manchukuo state policies, such as the National Army Law and development policies, exemplified the typical traits of wartime media. Its pages—not only editorials but also newly established regular columns, news reports, and reader contributions—were thoroughly saturated with the government's official line.

Key words: Manchukuo, *Manseon Ilbo*, State Policy, Koreans in Manchuria, Regime-collaborating Newspaper